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8. 26.(금)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온·오프라인 병행)

주최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주관 |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강민정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

목 차

개 회

개회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3
축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5
	강민정 국회의원	6
	정경희 국회의원	7
	장상운 교육부 차관	8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10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12

세션 1

강연	김도연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15
토론	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29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2
	송미나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	38
	신현준 YTN 사회2부 기자	43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47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장	50
	한영욱 대소중학교 교사	53

세션 2

발표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59
토론	김지후 국제지속가능청년연합 사무국장	69
	서현지 교육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원	71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73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	75

포럼 프로그램

구분	시간	순서 및 연사	
개회	14:00 ~14:20	개회사 및 축사	
세션 1	14:20 ~14:40	강 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 김도연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4:40 ~15:40	좌 장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토 론	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송미나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 신현준 YTN 사회2부 기자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옥 대소중학교 교사
세션 2	15:45 ~15:50	발 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발표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15:50 ~16:30	좌 장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 론	김지후 국제지속가능청년연합 사무국장 서현지 교육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

개회사 및 축사

개 회 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을 후원해 주신 국회 교육 위원회의 유기홍 위원장님, 강민정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 그리고 교육부 장상윤 차관님, 김도연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함께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문구처럼, 유네스코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하면 흔히 세계유산을 떠올리지만, 유네스코 활동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교육장관들이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협의한 것을 계기로 창설되었습니다. 무지와 편견이 불평등을 퍼뜨리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6·25로 폐허가 된 한국에 교과서 인쇄시설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개념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유네스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전세계적 교육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미래 교육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도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전세계적으로는 찬탄의 대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국회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원제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사람, 가정, 공동체, 지도자 상호 간의 의무(reciprocal obligations)를 의미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회 계약 역시 발전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의무와 필요를 절실하게 경험한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질의 평생교육·학습권 보장”입니다. 그동안의 국제사회는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미래 교육 전환에서는 교육권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의 전반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ur),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강화”입니다. 이는 교육이 공공재(public good)로서 정부 등을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뿐 아니라, 공동재로서 전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을 함께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2022년 9월 19일 개최될 유엔 교육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를 계기로 미래 교육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고자, 각 회원국에 교육 전환을 위한 전사회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6월 28-30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사전회의에는 전세계에서 2,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교육 전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포럼이 한국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대전환의 시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혼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포럼을 함께 준비해주신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한국의 미래교육에 관심을 두고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유네스코가 205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교육이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개별화된 경쟁방식은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원실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나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협력과 연대를 위한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교육이 협력과 연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고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강민정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명확한 교육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장관은 여전히 공식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앞장 서주신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유기홍 의원님과 김병욱, 정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유네스코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약 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협의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류와 지구의 복합적 위기가 분명히 드러난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 대변화를 꾀하려는 이 보고서의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공공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동재라는 대원칙에 크게 공감합니다.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을 넘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고 이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비단 교육전문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등, 연대, 포용, 변혁, 웰빙 등의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협력적이며 전문적인 교수 행위가 가능토록 지원해야 하며, ‘지식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상호문화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마침 올해는 국가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어 고시되는 해입니다. 유네스코가 출간한 이 보고서에 담긴 의미있는 제언들이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고서를 발판 삼아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 귀담아 듣고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경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 경희입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보건 위생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 예측불가능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지구전체를 위한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설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툼 소녀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은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포럼에서 교육의 미래를 논하며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2022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장상운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장상운입니다.

우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교육 전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행사를 후원해주신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욱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과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를 후원해주시고 직접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강민정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주시는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님,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시고, 이 자리에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소개해주실 김도연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 위원님,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해 11월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미래교육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전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따뜻한 미래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증시하고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위한 정보 교육을 확대하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능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국민과 함께 공감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포럼은 우리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organizing this 2022 Forum on the Futures of Education devoted to the theme of *A new social contract for Korean education*.

한국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논의할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The forum could not be more timely as we gear up for the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in New York next month.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릴 유엔 교육정상회의를 맞이하며, 이번 포럼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And I warmly commend you for translating into Korean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 a key reference for the Summit.

더불어 이번 교육정상회의의 기반이 되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국문번역본 발간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s was highlighted at the Pre-Summit at UNESCO Paris in June,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must go beyond reform to shape more just,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s for humanity and the planet.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교육전환회의에서 강조되었듯이, 교육 전환은 개혁을 넘어 인류와 지구를 위한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Transformation implies building on strengths while boldly moving towards *different* ways in which education is understood, valued, supported, experienced, and advanced in every context for every child.

교육 전환은 견고함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모든 맥락에 따라 교육이 이해되고, 평가

되고, 지지받고, 경험되고, 발전하는 다양한 방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offers both the vision and process for such transformation.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그러한 전환을 위한 비전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t me elaborate a little bit briefly on the two dimensions.

그러한 비전과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vision of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must be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quality education *throughout life*.

먼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비전은 평생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The process of forging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must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education as a public endeavor and a common good.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과정은 공동의 노력이자 공동재로서의 교육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se principles imply bot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s well as a society-wide movement for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이러한 원칙은 교육 전환을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UNESCO looks forward to the results of this forum as you explore what needs to be strengthened, to change, and to be reimagined as you define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in Korea - a nation that has always placed learning at the heart of its remarkable development path.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이 강화되고, 무엇이 변화하고, 무엇을 새로이 상상해야 할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교육을 중심에 두며 놀라운 발전 과정을 보여준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정의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기대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 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반갑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구촌 시대입니다. 또한, 세계는 기후위기와 전염병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산업·기술적 전환에 대응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한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연대하고 상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삶을 위해 지구촌의 다양한 존재들과 공존해야 합니다.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 능력을 갖는 세계시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시민, 미래 기술 역량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0년 유네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유네스코 지속가능교육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도 지구생태계를 유지하며 더불어 발전하고 상호이해와 존중,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전환에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션 1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

김도연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22년 8월 26일

유네스코가 펴낸
<Futures of Education>
<교육의 미래들>

김도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2019-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Education, long acknowledged as a powerful force for positive change, has new, urgent and important work to do. This report, two years in the making, invites governments,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forge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that will help us build peaceful, just, and sustainable futures.



미래를 가꾸기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2050년을 바라
보며 교육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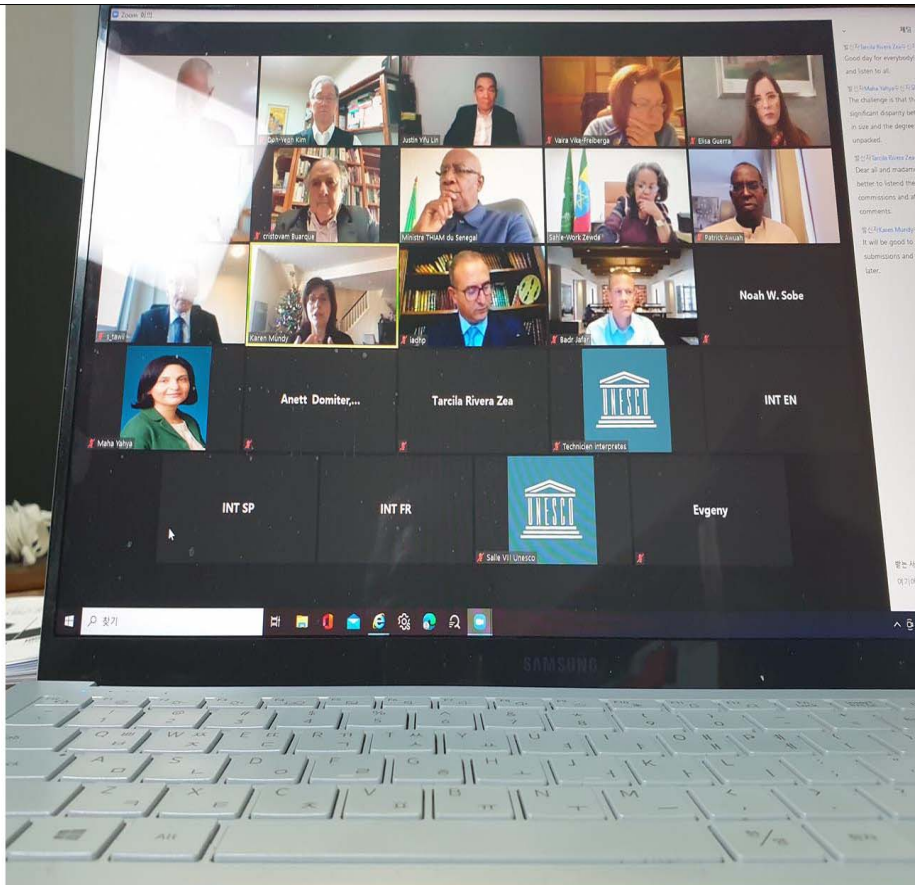
-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가?
- 무엇을 그만 두어야 하는가?
-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22년 4월 출간





첫 회의 혹은 마지막(?) 회의: 2020년 1월 28일-30일 - UNESCO 본부 (Paris)



동아일보
2020년 3월 26일

코로나가 바꾼 대학 풍경



김도연 칼럼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비이리스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 두 력으로 쓰는 성형 문자 인(人)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은 의지하고 반재주며 사는 존재인데 이제 서로 기대는 것은 금기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 간(間)'이 관계한 것이 인간(人)이다. 살아만 걸음 사람이라는 사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이가 단절됐다. 이 원년(元)을 기준으로 이어지려는 BC(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고, AD(Anno Domini)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BC와 AD는 각각 '코로나 이전', 즉 'Before Corona'와 질병 이후란 뜻의 'After Disease'가 붙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이다.

우선 급작스럽게 맞이한 큰 변화는 현실에서 멀어진 인간 관계가 사이버 세계에서 오히려 더 긴밀해진 것이다. 재택 근무나 온라인 쇼핑이 매우 활발해졌고 원격 의과까지 현실적으로 허용됐다. 비이리스는 교육계에도 큰 충격을 미쳤다. 전통적인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같은 또래 학생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모음이 불가능하니, 교육 담당자 모두가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은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에 올라 있는데, 우리 교육계가 그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세계 유수 대학에서는 무인(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 즉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를 위해 많은 교수들이 강의실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 기반을 둔 코세라(Coursera)에도 400여 강좌가 올라 있으며, 결국 대학 교과목이 거의 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강좌들이 이제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에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 토론 그리고 학생 간의 대화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강

- ▶ 수업 우려해 접촉-모임 최소화
- ▶ 인터넷 온라인 강의 이용 급증
- ▶ 스탠퍼드대, 400여 개 콘텐츠
- ▶ 동영상 예습-강의실 토론 '호평'
- ▶ 규제 특인韓 대학, 같 길 멀다

의 중 수시로 퀴즈 및 중간고사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교수의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교육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물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는 소위 에듀테크(EduTech)교육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강의만으로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도 이미 많이 있다. 이를 들어 미국의 에디슨기술대학은 모두 10여 전공의 학사학위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등록금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과정의 30% 정도인데 여기에 3인 방이 넘는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살면서도 에디슨기술대학의 정규 학생과 똑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

는데, 이는 온라인 교육의 진척(進) 수준을 대학이 그만큼 보장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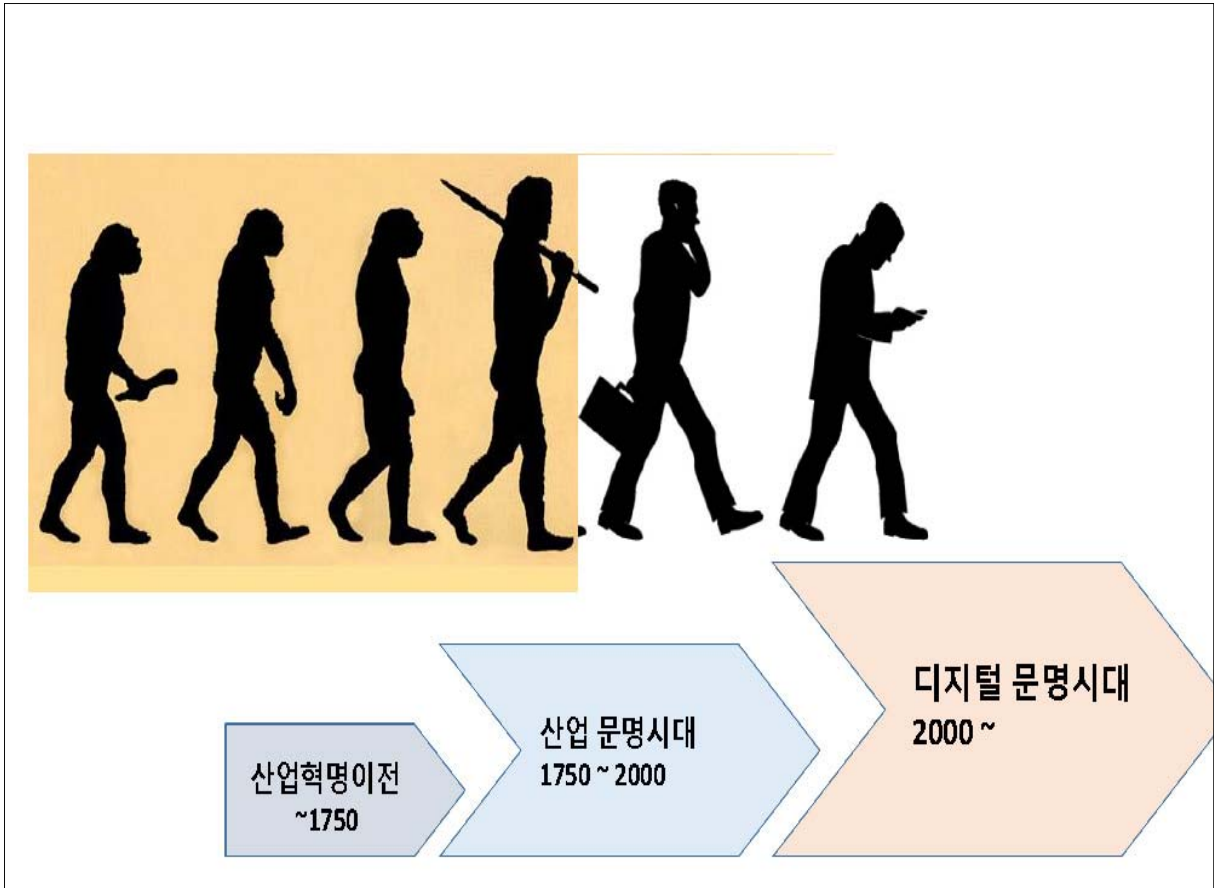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대학의 일반적인 강의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일은 상당히 활발하다. 20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칼 와이먼은 해안산 연구의 데블에 학생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탠퍼드대 물리학 및 교육학 교수다. 그는 2011년에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대규모 학생을 위한 효율적 물리 강의'의 논문에서, 강의 자료를 미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후 해당 내용을 학생들과 토론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강의에 비해 교육 효과가 훨씬 두드러짐을 밝혔다.

이때에 미리 제공하는 자료로 가장 좋은 것은 강의 동영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고 토론이나 과제 풀이는 학교에서 하는 학습 방식이다. 즉 전통적 학습과 위치가 반대이므로 이를 역전형 학습, 혹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라 부른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는 혼합형 학습, 즉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기도 하다. 이런 교육 방법은 인간 급한 바의 같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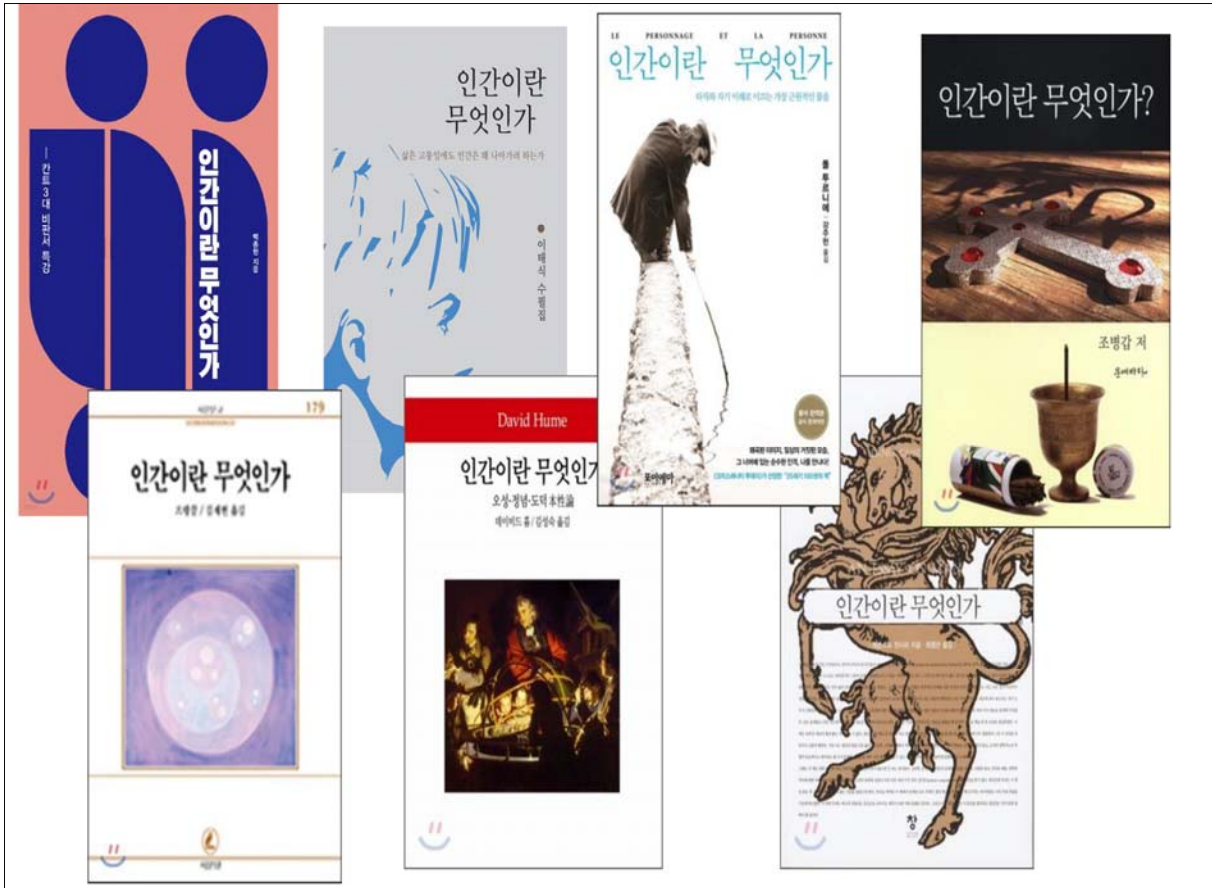
전통적 대면강의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우리 대학들도 온라인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효율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서는 새롭고 빠른 노력의 힘이 요구되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가이 안 길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들은 아직도 온라인 강의가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남아 있다. 비이리스는 물론이고 이런 규제들도 빠르게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BC (Before Christ) → AD (Anno Domini)

•BC (Before Corona) → AD (After Disease)



This section features the same three-stage evolutionary diagram as above, with the central question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human?) displayed in a grey box below the arrows. Below the question, there are two images of sunglasses: a pair of black sunglasses on the left and a pair of colorful (yellow, red, blue) sunglasses on th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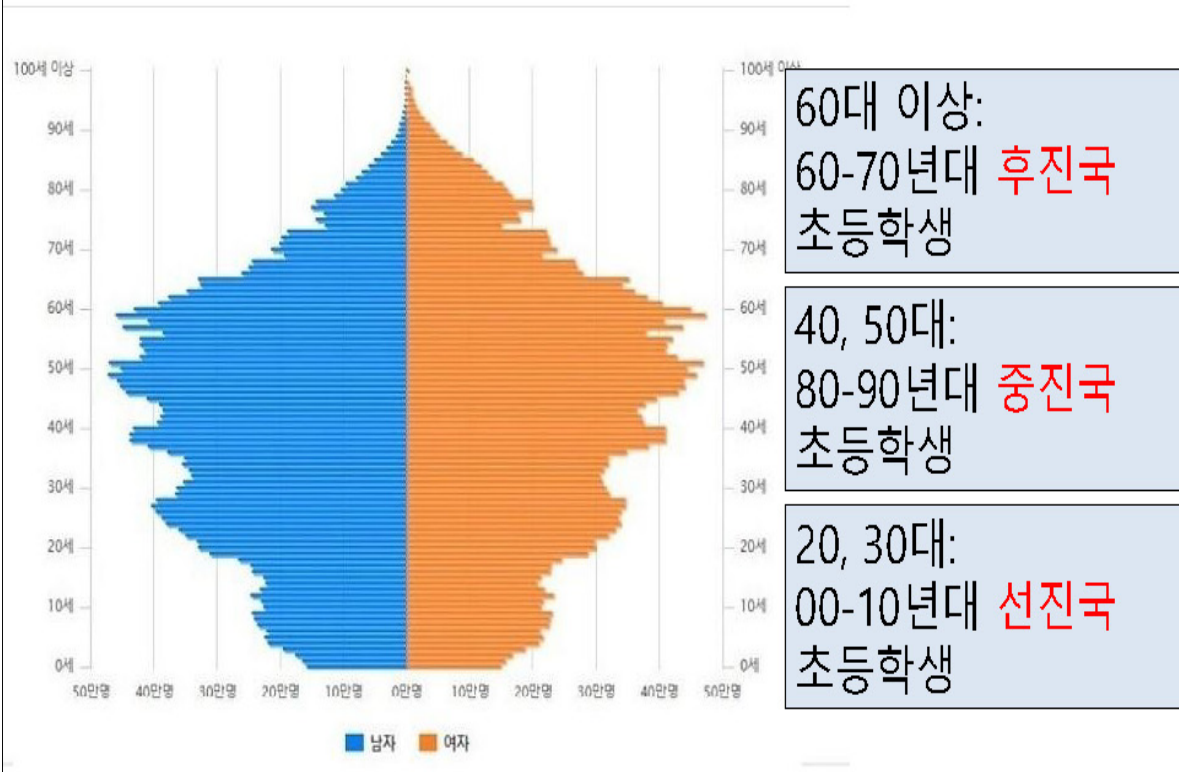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대한민국 교육은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계속 **돌**만 다루고 있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분포



대한민국은
 후진국,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닐까?



All things must change
to something new,
to something strange

Henry Wadsworth Longfellow
US poet (1807 - 1882)

Three essential questions should be asked of education:

- 1). What do we do now that we should continue?
- 2). What should we abandon?
- 3). What needs to be creatively invented afresh?

- 1).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 2).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일까?
- 3).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일까?

Report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1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름, 독자 이지도 이 한 글의 서명을 독자의 취향임을...

2. <O>는 <A>와 같이 독자를 위해 학자가 썼을 독자 방언이다...

해설하려는 문제가 관행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펼치...

- 1. 읽은 책을 만재기 전에 해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만 경계...

3. 다음은 허균은 읽은 책의 독자 기록물 일부이다...

이와 독자 기록은 정음과 정음의 차이를 나타내며...

- 1. 필름을 바탕으로 할 때, 디지털의 적용이 있는 것은?

- 1. 글을 실행해 주는 독자의 가세를 제공하고 이를 실행하는...

1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

국어 영역(회범과 작문)

홀수형

43. 다음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고 유일한 서술어이다...

43. 다음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고 유일한 서술어이다...

가) [1]의 문맥에서 '주요'는 '주요'를 의미한다...



가) [1]의 문맥에서 '주요'는 '주요'를 의미한다...

43. 초자연적 기-은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의 범주이다...

- 가) [1]의 문맥에서 '주요'는 '주요'를 의미한다...

44. 다음은 <O>를 쓴 기사가 잘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에 대한 검토 자료 중 () 부분에 해당 정답을...

- 1. 편집이 이루어진 후, 다음 단계에 들어갈 편집 방향...

44. 다음은 <O>를 쓴 기사로 가장 잘 편집한 것으로...

- 가) [1]의 문맥에서 '주요'는 '주요'를 의미한다...

16

- * 확인 사항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관련 미래교육 전환 논의

(좌장)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송미나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

신현준 YTN 사회2부 기자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욱 대소중학교 교사

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을 공동재(common goods)로 보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를 강조한다. “정부는 상업화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이를 규율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market)이 더는 교육을 인권으로서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p.15)는 내용이 보고서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이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가적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p.48). 존중, 공감, 평등, 연대와 같은 가치는 미래의 대학과 전문대학 및 기술교육기관들의 핵심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p.68). 고등교육은 지식과 과학에 대한 무료의 개방된 접근을 열렬히 지지해야 한다(p. 85)”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을 공공재로만 보게 되면 대학의 무상교육과 대학 평준화를 통한 대학 서열체제 완화로 담론이 전개될 수 있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가재정을 어렵게할 뿐 아니라 학력인플레로 대졸실업자를 양산하고, 대학 평준화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다.

□ 대학경쟁력이 미래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20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대학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으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에 비해서 대학의 평판은 높지 않다. 한국의 대학들이 인류 공동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교육을 산업으로 보아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민간 경영 방식을 대학에도 도입하고 관료적 통제를 경쟁원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관리와 교수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 성과, 수요자(고객)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장 지향적인 경쟁원리를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투입요소를 규제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통제 중심에서 얼마나 교육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중시한다. 소비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중시 정신을 받아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평등주의적 진보인사들은 대학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경쟁의 논리에 의한 사회적 소모성, 이기주의에 의한 공동체의 해체, 대학이 자본에 종속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대학을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업·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력 미스매치(mismatch)해소에 도움되고, 미네르바 대학처럼 기존의 대학을 뛰어 넘는 혁신창조형 대학이 나타나며,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대학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구호 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국가주 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친 국가주도로 인해서 학교의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유모 정부(Nanny State)’에서 탈피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자유로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기결정권이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과제로 대학입시와 등록금책정권이다. 대 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제시하였으나 경쟁의 내용만 달리할 뿐 정책성과는 미미하다. 타당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의 모색은 대학의 책임이다. 지성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의 학생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가·관료가 이끄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 13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악화일로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염두도 내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사립대가 8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등록금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중단해서 인재양성과 연구역량강화에 투자토록 해야한다. 정부가 학생부담 이유로 사립대 등록금을 통제하는 선진국은 없다.

셋째, 학생수 절벽 충격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령아동 급감으로 구조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계는 외면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후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넘기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폭이 0.48명으로 제일 크고, 합계출산율도 1미만(0.81)인 유일한 나라이다. 연간 태어나는 아동 수도 1970년대 100만명에서 2021년에는 26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초등학생수는 10년 후 지금의 절반으로 준다. 현 정부가 끝나는 2027년부터 과원교사 문제와 소규모학교 폐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2028년부터 교사가 남아돌아 신규교사를 뽑지 못하여 임용 대란이 발생한다.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가 현재

전체 학교의 16%이 이르는데 이들 학교의 폐교위기에 놓여 지역소멸을 가속시킬 것이다.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학생 미충원 사태가 심각해져 문 닫는 대학이 현실로 다가왔다. 2021학년도에 대학지원자가 4만 명이 모자라고, 2024학년도에는 정원 부족이 1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학의 모집정원을 2010년 57만 2천명에서 2021년 47만 4천명으로 줄였지만 학령아동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충원은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 전문대학부터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로 몰리는 대학이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covid 19) 팬데믹은 대학의 폐교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학생의 부족을 메꾸던 외국인 유학생 수도 줄고, 평생교육강좌의 폐쇄로 단기 수강료 수입 감소하는 반면에 방역 및 온라인 수업에 추가적인 지출이 늘어서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대학의 폐교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립대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전문대 98%, 대학 77%)이므로 사립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과잉 투자된 자원을 감축(downsizing)하는 진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경쟁력없는’, ‘중복성있는’ 대학과 학과의 자연스러운 퇴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넷째, 유네스코의 국제적 연대(Global Solidarity)와 공동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기여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양적·질적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우리 강점인 ICT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Latin America and Carrebean Countries의 최빈국, 저소득국, Small and Ireland Countries 등 국가의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기회 확대에 국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크고 작은 혁신 과제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를 일거에 혁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서 제기된 혁신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논의 기본 전제

-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음.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기대, 이를 바탕으로 한 당위적 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머물게 되고, 현실 문제 해결에는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임.(예: 남미 교육철학자들의 주장과 남미 교육의 현실)
- 당위적 주장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당위적 주장, 즉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것임.
- 세계는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도 모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임. 학교가 이들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르지는 않았을 것임. 교육이 가야할 당위만을 외치는 사이에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 일까에 대한 성찰이 함께 필요함.
- 오늘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볼 것인가에 따라 미래교육방향도 달라질 것임. 직면한 과제 중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해결 가능한 것 중에서 국가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과 민간에 맡겨야 할 것 등을 구분해야 함.

2. 교육 지배구조(거버넌스)

- 새로운 사회계약을 포함한 미래교육 방향 제시할 조직과 절차 필요

가. 협치(협력적 통치), 참여적 통치 체제 구축

- 유네스코가 제안하는 바를 토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 역할은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혹은 국회를 포함한 제3의 기관)가 담당하는 것이 합당

나. 지방교육자치단체 차원의 협치 체제 구축

- 지방교육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응하는 '000교육위원회' 설치 필요
- 교육감이 바뀌면 많은 제도와 정책이 요동을 치고 있음. 교육감 1인의 교육적 신념이

아닌 이해관계집단,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지역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가는 것을 보장할 조직이 필요함.

-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협치 체제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실천 구심체가 될 수 있을 것임.

다. 평생교육 체제 재정비

-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해짐
-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달리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을 위한 협치 구조 마련, 자원 확보 방안 논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목적 재정립

-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1)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해결, 2) 미래 예상되는 문제 해결, 3)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어야 함.
- 교육과 관련한 사회 집단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완화하고 극복하며, 밝은 미래를 창조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 상황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음. 교육계에서는 국제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중·러의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놓여있음. 일본과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동아시아 3국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남북 대치 상황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상호협력 상생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 염두에 두며 교육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4. 국가의 역할과 한계

- 교육에서 국가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국가 역할의 한계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민이 함께 필요함

가.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장

- “공공재정과 정부의 교육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개인의 교육 자유와 국가의 감독 역량 강화 사이의 조화점 탐색 필요
- 교육과 관련한 제반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탓이고, 책임도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책임의식 약화로 이어지고, 개인의 자력 회복 의지와 역량을 감소시키며, 사회에 대한 고마움 대신 사회에 대한 분노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대중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 책임을 지는 대중과 개인은 사라지고, 책임을 묻는 대중과 개인만 급증
- 국가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그리고 개인과 대중의 사회 및 서로에 대한 감사 역량 강화도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일 것임.

나. 국가와 시장의 관계

- “보다 유연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긍정적 발전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오는 문제점만이 아니라 그 강점을 바라보며 미래교육을 설계해야 함. 국가 주도는 비효율성, 비적응성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음. 이 문제를 어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자본주의 체제를 택한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하는 것의 득과 실을 함께 따져야 할 것임.

5. 국제교육에의 기여

가. 대한민국 교육학자의 관점에서 본 유네스코 보고서

- 한국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양의 최근 교육학자, 교사의 관점은 인용되어 있지 않음. 이 보고서 작업을 수행한 중심 조직과 개인도 서구 유럽과 아메리카 및 그 나라 출신 사람들.
-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 대한 인용(예: 145쪽 우분투)은 있으나 동양 교육철학과 사상 및 최근 성과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불교와 유교철학을 비롯하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우르고 이를 넘어서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상체계가 존재하지만 인용되지 않음.
-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은 우분투를 넘어서는 개념이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음
- 국제관계서 한국교육의 역사와 철학, 이념, 성공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는 데에 우리 교육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이는 인류 사교의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
- 보고서 집필 연구위원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의 세계 인구 비중에 부합하는 참여가 필요. 그것이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에도 부합함
- 우리나라 학자와 교육자들도 국내 학자와 교육자의 주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해방 이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와 교사들이 인용하는 것은 대부분 서구의 것임.
- 우리 나라 학자 및 교사의 연구물을 토대로 국제 교육 발전에 기여할 때임. ODA 사업에 한국교육학자, 교사의 책 및 논문 번역 포함시킬 것.
-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방향 제시에 기여하는 방안 탐색 필요.

-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보편교육 실현, 교육기회균등을 상대적으로 잘 이뤄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다양성과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홍익인간 재조명

- 소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강화되고 우리 공동의 인간성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비전으로 품는 것이다.”
-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꽃 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적 가치, 한국적 가치와 교육이 유네스코가 시도한 미래교육 전환 방향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함.

**** 세계시민, 우분투 그리고 홍익인간**

교육기본법 2조에 명기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과 1) 인격 도야(陶冶), 2)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을 통한 인간다운 삶 영위, 3)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이라는 교육목적은 법전에 담아 케비넷에 넣어 두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망각한 채 지내 온 경제성장기의 우리교육은 고통스러운 암흑기를 거쳐 왔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전도된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마련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홍익인간’ 이념을 법전에서 끄집어내어 우리교육의 진정한 이념으로 부활시킬 때가 되었다.

르네상스는 오래된 미래를 부활시켜 다가올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관련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을 바라보며 미래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열었듯이 한국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의 재발견과 부흥을 통해 세계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 르네상스 운동은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교육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북극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발전시킨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을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갈 좌표로 제시하여 채택되게 하였다. 이제 우리에게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¹⁾, 서양의 시민의식(citizenship), 그리고 우리의 홍익인간은 지향점이 같은 삶과 교육의 이념이자 지침이다.

6. 추가 제안

가. 미래 학습 및 교수법의 관심

- 우리 교육 : 뇌학습, 뇌과학, 학습과학에 더 많은 관심 필요.
- 축적된 우리의 빅 데이터 활용 필요 : 엄청난 예산과 인력 및 노력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나이스 자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름. 그 결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보물이 창고에 넘쳐나는데 문을 굳게 걸어 잠금으로써 그 안에서 가치가 퇴색되고 있음.

나.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 재조명

“학생, 교사, 지식은 고전적인 교육의 세 꼭짓점이다.”

- 교사의 개념에 학교의 교사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 사회의 성인 멘토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미래교육 방향에서 부모를 핵심 주체로 포함시켜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용이할 것임.

7.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스말로그교육

* 구체적인 내용은 “박남기(2021.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32(2), 17-32.” 참고

미래교육의 바람직한 뉴노멀은 혼합학습이나 혼합수업이 아닌 스말로그교육 (smart+ analogue)이 되어야 한다. 스말로그교육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과 전통의 대면 아날로그식 교육을 조합한 용어이다. ‘스마트교육’은 스마트 폰에 사용되던 ‘스마트’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신조어이다. 스마트(SMART)는 Self-directed(자기주도), Motivated(학습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ical Embedded(정보 기술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스말로그교육에서 말하는 스마트교육의 핵심은 스마트 기기, 다양한 앱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육이다.

스말로그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은 교내와 교외로 나뉘볼 수 있다. 교내의 필요조건은 학교와 교실에 스마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1인 1 스마트 학

습 기기 구비, 교사와 학생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제고, 스말로그교육 수용 문화 축적이다. 교실에서의 오전 수업을 마치면 학생들은 학교 밖의 학교, 교실 밖의 교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삶의 기술 체득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체험 등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스말로그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한다면 학생들은 기존 학교와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날로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시에 첨단 에듀테크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센터 활용 교육까지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만드는 것, 그것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제반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교외 기관들도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 있다. 학교가 이러한 현장 밀착형 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자유학년제 시행 초기처럼 지역사회의 제반 기관이 이러한 역할에 익숙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경영자가 주도하고, 관련 부서가 나서서 인근 지역사회의 제반 기관이 학생교육에 동참하도록 인식 전환 및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한다면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역량과 의욕을 갖춘 교사를 중심으로,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중심으로 스말로그교육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형 미래교육 세계화를 위한 'K-EDU 생태적 인성교육' 도입을 제안하며

송미나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

현재 지구와 인류 모두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으로 민낯이 드러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장에 따른 역설과 딜레마, 국가간 · 국내 계층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는 도전은 지속적으로 심화 ·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보고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원칙을 균형감각을 갖춘 전인교육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보고서가 갖는 의의다.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실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이 강조되는 역량중심 교육으로 나아가감을 볼 때 총 9장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대화와 행동의 원칙(principles for dialogue and actions)'이라는 실천적 지식도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보고서가 갖는 교육적 의의와 함께 미래교육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춰 토론해보고자 한다. 서론을 포함하여 '제2부 교육의 혁신'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토론하겠다. 후반에서는 미래교육 활성화와 함께 우리교육의 세계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육기본법인 홍익인간과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한 'K-EDU생태적 인성교육'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본 토론자가 생각하는 보고서의 의의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으로 교육을 대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인권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권 확대와 공공재(public goods)를 넘어 모두 함께가 강조된 공동재(common goods)로 접근한 교육의 개념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속성상 존재와 발전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볼 때 양립하기 어려운 상반된 교육의 두 가치가 핵심 기본 원칙으로 제시된 셈이다. 아무리 새로운 사회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희생이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간의 상호 우호적 관계는 대부분 지속 불가능하다. 개인의 행복과 평화로운 공동체가 우열 없는 수평적 가치로 동시 존재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다.

이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사회계약의 두 원칙은 발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구와 인간의 존재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은 과학 기술력과 함께 본능적으로 무한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나 지구는 지속가능한 변화는 추구하나 그 변화의 목적은 인간처럼 발전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변화를 할뿐이다. 양팔저울의 0점 조정을 맞추듯이 지구의 유일한 변화 목적은 회복이라는 0점 조정을 맞출 필요가 있을 때만 변화를 시도할 뿐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기대하는 미래의 교육도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간을 위한 0점 조정을 맞추는 균형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무한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볼 때 인류 모두의 의미 있는 절제와 희생이 담보되지 않는 한 미래교육은 도달하기 어려운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양립 불가의 가치를 지닌 지구와 인류라는 상호배타적 존재를 우열 없이 동시 존재 가능하도록 교육 목적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 점은 보고서가 갖는 대표적 의의다.

보고서의 행간은 모든 평생학습자로 하여금 지구와 인류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균형감수성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계적인 산술적 평균으로서의 균형의 의미가 아니다. 심화된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균형감수성 교육은 생태학적 감수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교육의 대 원칙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시대정신을 뛰어넘은 끊임없는 제자리 찾기 균형교육은 보고서가 갖는 가치이기도 하다.

인간의 발전 방식의 속성상 자신들이 개발한 수많은 기술 중에서 발전과 보존을 동시에 맞추는 0점 조정의 기술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지 않을까 싶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하는 교육이 균형교육임을 볼 때 균형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과 연결, 협력, 연대의 개념이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고 깊은 의식으로 진화될 것이 요구된다.

사회계약의 두 번째 원칙으로 강조된 가르침과 배움을, 공유된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rs)으로 제안하며,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에서 공동재(common goods)로까지 확장한 의미를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를 비롯해 현장과 교사 모두 각각의 전문가 입장에서 깊게 이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대전환과 함께 사회변혁도 동시에 필요하다.

미래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한 욕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볼 때 0점 조정을 해치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가치 편향적 지배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로 갈라 쳐 어느 한 쪽의 폐쇄적 사고에 지배당하는 비합리적 사고가 활성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개인의 균형감수성을 포함하여 상호 의존과 협력 연대 등이 단순 구호나 텍스트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방대한 지식은 개념이 왜곡되지 않게 원형 그대로 수업현장까지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교육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중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 지식이 소외된 채 활성화된 역량중심 교육의 오개념도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역량의 개념은 습득된 타인의 지식이나 지식으로 변환되고 그 지식이 심화 확대되어 내면화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행동으로 발현되는 지식이다. 역량의 핵심소재가 지식인 이유다. 학습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도록 돕는 ‘행동하는 지식’ 으로서의 총합적 지식이 역량의 개념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육생태계 최전선에서 교수학습 활동 구현이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학습의 개념을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문성에 기반해 인지기술 및 사회·정서적 학습, 행동역량까지 총합적 차원에서 정립하고 시대와 무관하게 작동되는 가르침의 근본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스마트와 디지털기술을 내세운 에듀테크 정책도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이나 디지털 기술의 장점과 한계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공지능인 AI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인공지능교육은 디지털 기술 중심의 AI교육이 풍년일수록 학습자의 학습력이 지속적으로 빈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AI교육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은 학교와 학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AI 교육은 인간지능인 HI(Human Intelligence) 활성화를 위한 수단적 도구적 존재로서의 교육 임을 교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AI와 HI를 가르치는 마지막 보루가 인간의 사고(Thinking)임을 볼 때 모든 AI교육의 목적 또한 인간지능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혁신적인 수업방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이 제공되고 있어도 학습격차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학습격차 문제를 옳게 정의하고 있는가 다시 진단하고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와 국내학업성취도평가가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근원적 원인 규명과 처방이 필요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의도와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교육과 수업정책들은 미래교육 출발 전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원정책의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

현재의 교원정책은 가르침과 배움 그 자체를 전문성 있게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교사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교육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함을 볼 때 현재의 교원정책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후진적인 정책이다.

교수연구 중심의 전문화된 교사교육 시스템 부재는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은 빠진 채 혁신이나 미래라는 수식어로서의 이름만 달고 수업시장에서 유행하는 수업방법들이 우후죽순이다. 전문성은 소외된 채 다양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배움 없는 배움 중심수업이나 학생 없는 학생중심수업 등이 대표적 예다. 이러한 수업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학생의 학습력 담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합의된 전문성의 공유가 부재되다보니 전문성의 자리에 자율성 기반의 방만한 다양성과 새로움이 대신 들어가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일단 다양하고 새롭고 보자는 비정상적인 다양성과 기준 없는 새로움이 또 하나의 획일로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목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학습자 상(像)이라는 비전은 소홀히 된 채 단순히 다양성을 위한 다양성 중심의 수업들이 활성화 되어있다. 교육에서 어떤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성패와도 직결됨을 볼 때 현재 다양성과 방법중심으로 활성화된 수업혁신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수업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유된 비전’과 수업목적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전문성 중심의 목적지향의 수업문화’로 새로고침 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생명인 교직에서 전문성의 가치보다 다양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작동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교직문화는 미래사회에서 추구되는 유연함과는 분명히 다른 비정상적인 교육적 정서다.

전문성의 개념이 변질되어 획일화로 치부되다 보니 전문성에 의해 해석된 교육의 비전과 목적, 방향은 상실된 수업문화다.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학습의 본질을 고민하는 획일성이 아니라 수업방법을 포함해 항상 새롭고 다양해야 한다는 혁신 강박관념이 획일화 되어있다. 목적 없는 다양성이나 질서 없는 자유, 책임 없는 자율, 질 개선은 없는 채 유행처럼 등퇴장만 하고 있는 새로운 수업방법, 학습 없는 경험과, 심화된 질문은 소외된 채 손발만 바쁘다 보니 사고력 신장은 담보되지 않는 배움 없는 활동중심 수업 등은 미래교육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서 반드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미래교육은 지식기반의 심화된 학습을 지향한다.

교육주체들에게 요구되는 ‘대화와 행동의 원칙’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학습의 부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유일한 힘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습에서 비롯됨을 볼 때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사와 학생의 책임 있는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구에 기반한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신장 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교사교육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미래라는 이유로 교사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국형 미래교육을 위한 ‘K-EDU생태적 인성교육’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생태적 인성교육의 개념은 한국형 인성교육에 생태학적 관점을 더한 개념이다. 생태학적 관점이란 인간과 환경을 지속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생각하고 둘 사이의 상호보완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론적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과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인성의 개념이다.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의 법적개념을 3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인성,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인성,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성으로 개인적 차원의 인성, 사회적 차원의 인성, 지구와 인류 차원의 인성으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즉 인간 자체, 인간과 사회, 인간과 지구환경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공동체적 삶은 물론 지구를 제 3의 인간으로 포함시킨 생태적 가치교육의 개념이다.

‘K-EDU생태적 인성교육’ 세계화로 한국형 인성교육과 한국형 미래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 공공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신현준

YTN 사회2부 기자

- 유네스코 보고서의 핵심은 근대 학교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한다. 핵심은 크게 2가지: 1.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2.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의 교육 강화 필요.

또 우리와 지구의 미래는 하나이고, 위기에 처한 만큼 교육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다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공통점은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한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 코로나19,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손실, 민주주의 후퇴 등이다.

-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이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코로나 학교 폐쇄로 영향을 받은 학습자를 16억 명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교육은 발전했지만, 불완전하고 불공평은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능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격수업이 학교 활동을 지원하지만, 대체는 못 한다고 지적한다. 대면 교육이 부족하면, 사회적, 지적, 정신적 웰빙에 심각한 영향이 오고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으로 학력 격차 발생하며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난해 고2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국어 미달 학생 비율은 1.78배,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58배로 늘었고, 영어는 미달 학생 비율이 172% 증가하여 2.72배, 즉 3배 가까이 늘었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고2 국어의 경우 2019년 77.5%에서 2020년 69.8%, 2021년 64.3%로 학업성취도가 일부만 보는 방식으로 바뀐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심리와 정서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학생 10만 명 당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지난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지난해에는 잠정치가 3.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년간 원격수업으로 대학 생활의 낭만을 경험하지 못한 대학 1~2학년들은 아직 고등학생 세계에 머물러 있다. 입학했어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던 초등학교 1~2학년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듬어줄지, 떨어진 문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는 여전한 숙제다. 이런 영향을 해소하려면,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민감한 청소년

기에 코로나를 겪은 코로나 세대는 MZ 세대와는 감성이 다른 또 다른 '코로나 세대'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 다만 사회를 배우는 초중고 교육과는 분리해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다. 코로나19가 교육 변화 흐름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미래 교육과의 접점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하고 싶다.

줌 화상회의나 원격수업을 접해보지 못했던 대다수 지구인이 2년 동안 이런 사이버 환경에 강제로 익숙해져야 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길이 열린 셈이다. 배움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차별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평생의 교육,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대학 모습이라고 꼽히는 몇몇 예를 들어 보겠다. 기존의 원격교육에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을 강화한 경우다.

- 미네르바 대학

지난 6월 27일 미네르바 대학 창립 학장인 스티븐 코슬린 교수가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능동적 학습과학' 특강을 했다.

미네르바 대학은 세계 7개 도시 (서울,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런던, 타이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이데라바드)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을 받는 혁신 학교로 지난 2014년 개교했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선정됐고, 지원자 합격자 비율은 1% 미만으로 미국에서 가장 입학이 어려운 학교. 이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실시간 토론과 학습자 참여로 수업이 이뤄진다.

코슬린 교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습자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습과학의 발달로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축적되지만, 교육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과 협업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90분인데 예습은 필수다. 수업 전에 쪽지 시험으로 예습을 점검하고, 토론을 시작한다. 수업 도중 조별 토의를 하기도, 발언이 적은 학생은 붉은색, 중간은 노란색, 많은 사람은 초록색으로 표시돼 참여도를 알 수 있다. 교수는 단지 조력자의 역할일 뿐이다.

- 코세라

창립자인 다프네 콜러의 강연을 들었다. 코세라는 스탠퍼드대와 프린스턴대, 유펜, 미시간대, 우리나라 연세대 등 세계 275개 명문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뉴욕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무료지만, 수료증을 받으려면 유료로 등록해야한다. 등록자는 2021년 기준 9천2백만 명, 누적 1억 8천9백만 명. 4,400여 개의 코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무료 교육이 아니라 중간중간 퀴즈를 내서 몰입도를 높이는 형식이다.

콜러 교수는 코세라의 장점으로 1. more interactive 2. 즉각적인 피드백 3. 개인 페이스에 맞춘 교육 4. 환경에 덜 위협받는 교육 5. 코스의 향상을 위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한 수업이라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6. 학생과 교수, 학생과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꼽았다.

콜러 교수는 한해에 보통 400명을 가르쳤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 1년에 10만 명을 가르쳤다고 한다. 250년 강의해야 가능한 숫자다. 특히 10만 명의 동료(Koller 교수는 peer라는 표현을 썼다)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강조했다. 어떤 학생이 언제 질문을 올리더라도 세계에서 누군가 깨어 있어 답변을 한다는 거다. 실제로 평균 응답시간은 22분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강의에 어떤 부분을 반복해 듣는지 (강의 난이도의 문제), 퀴즈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이해도 평가), 또 어떤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를 맞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투표를 하게 해 좋은 질문은 위쪽에 오르고 나쁜 질문은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도 채택하고 있다.

수강 강의에 참가한 글로벌 동료집단이 형성돼 정보나 관심사를 주고받는다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지역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는 10만 명의 학문적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우리나라의 K-무크

교육부 주도로 2015년 10월 생겼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10개의 대학의 20여 개 강좌로 시작했다. 수강생은 온라인상으로 교수자와 질의응답, 토론 등을 할 수 있고 시험과 과제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대학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140여 개 기관에서 1,358개 강좌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 97만 명, 누적 수강 신청 건수 225만 회다. 학점은행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듯하다. 예산은 281억 원이지만 교육생 간의 인터렉션도 미비하다.

미래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위 사례들은 2050년 기술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기술발달이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론 역사가 발전한다는 선의의 가정을 믿고 싶다.

- 제안하고 싶은 점도 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해 인터넷상에 허위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정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세부 집단을 표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나라나 집단별로 해석이 다른 역사문제,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도 비과학적인 사실로 흑세무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에서도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있지만, 필터링할 수 있는 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고서에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적, 인문학적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개인적 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여러 대안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 참여 팩트체크도 방법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오용 등의 우려가 있는 기업 보다는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국가나 집단 지성이 합해져 팩트체크를 하는 건 어떨까 싶다. 보고서가 말하는 2050년이 되면 AI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지속불가능성과 불확실성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가 약 백만 명의 목소리를 모아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이 세계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 요소(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가속화)와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과학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시스템은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 개인적 성공, 국가적 경쟁 및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서로와 지구를 돌보고, 연대하는 것을 훼손해 왔다.”

다가오는 티핑포인트

기후변화로 인해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땅 속에 묻혀 있던 메탄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0배 이상 온실효과가 큰 물질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는 급속하게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메탄이 방출되는 포지티브 피드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파멸의 순환고리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2019년 겨울에 시작된 호주 산불은 약 9억 마리의 동물을 죽이고, 100억 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에게서 서식지를 빼앗았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동물들 중에서 상당수가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해수 온도 변화가 호주 동부지역의 가뭄을 심화시켰고, 초기 산불로 인해 발생한 번개가 산불을 여러 곳으로 번지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종말의 순환고리가 더 강력하고 촘촘해졌다.

불행하게도 인류가 올라탄 기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는데, 기차의 앞머리는 이미 산꼭대기를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기차를 멈추기 위해 남은 시간이 3년인지, 7년인지 아니 어쩌면 이미 늦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는 인류가 21세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불안감, 죄책감, 무기력감 그리고 인간 혐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소용돌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죄책감,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와 어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안감과 분노감은 흔히 죄책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심화되기도 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이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향한 욕망,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무한 경쟁, 그런 경쟁과 서열화의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의 학교로 생각이 이어지면 오늘날의 학교와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종말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아닐 지라도 중요한 증범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묻는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이웃과 자연을 포함하여 자기 밖의 모든 존재들을 도구화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몰두하면서 화폐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목격한 것처럼, 겉으로는, 말로는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도 결국 뒤에서는 (가족을 포함하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습하는 데만 몰두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인가?

137억 년 전 빅뱅이라는 사건과 함께 우주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45억 년 전 태양과 함께 지구가 생겨나고, 그 별에 바다와 생명이 생기고, 무수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현생 인류가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의 뇌, 눈, 손가락, 성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를 낳은 것은 우주이고, 우리를 기르는 것은 지구이다. 인간의 사유능력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써버리기에는 너무도 신비롭고 거룩하다.

지구인이라는 자의식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의 선언문에서는 ‘인간이 환경의 창조물이자 형성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유네스코가 채택한 지구

현장은 ‘인류를 진화하는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전 지구를 우리 자신과 동일시 하는 보편적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간 토론자가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 1,734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를 보면,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59.7%)과 ‘나는 나(52.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지구인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은 37.5%에 머물렀다. 이는 가족의 일원(43.8%)이라는 응답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던져온 중요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에드가 모랭은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아서 집필한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 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그 네 번째 원칙에서 지구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지구연합은 우리와 우리의 지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물론 여기서 지구는 처음이자 마지막 조국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재로서의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7년 채택된 트비리시에서 열린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권고문은 ‘생태 위기의 원인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윤리 개념, 극단적인 실증주의에 기인한 하나의 실재에 관한 과학적 관점 등과 같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앞두고 진행된 연구에서 토론자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지구생태시민’을 제안한 바 있다. 지구생태시민은 세계시민, 생태시민, 민주시민을 통합한 것으로서,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21세기적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상품에서 지구인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할 시점에 있다.

“나는 지구인이다.

그러므로 지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시대 전환에 따라 교육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다. 대전환 시대 세계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흐름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만이 아니라 ‘OECD 교육 2030’을 함께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2018년에 발표된 ‘OECD 교육 2030’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가 제출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차원의 의제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맥락의 새로운 변혁적 교육론을 제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교육과 사회의 변혁’, 성공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의 ‘교육 목적 변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역량’, 참여 실천적이고 협력적인 ‘주체성 함양’, 모두의 발달을 지향하는 ‘보편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지속불가능 위기를 온존시켜 온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 지점 또한 유사하다.

이렇게 OECD 교육 2030이 유네스코와 같은 맥락의 교육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전환 시대에 대한 공유된 인식에 터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교육 2030은 자신들의 새로운 교육론이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결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교육패러다임 전환은 2015년 제출된 유엔 결의의 시대인식을 원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번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후 더욱 심화된 인식 속에서 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기구의 새로운 교육론은 교육 이념, 방향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이론, 학습론 차원에서도 전환적 모습을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전수/경험’ ‘지식/역량’ ‘공동/개인’ 등의 문제를 놓고 노정되어온 전통주의와 구성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동안의 교육논의에서 거의 고려되어오지 않았던 ‘발달’의 관점과 원리를 도입하면서 논의의 기초로 삼고 있다.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천의 토대가 되리라 본다.

유네스코가 그 동안 소외된 국가, 사람들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해 온 반면 OECD는 주로 주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온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전까지 두 기구는 교육공공성과 보편 교육 강화 문제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서는 기본적인 인식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 변혁에 대해서는 유네스코가 탈

성장주의를 분명히 하는 반면 OECD는 탈신자유주의 수준에 머물면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교육 변혁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같은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시대 상황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세계적인 통합과 연대 그리고 내용적 진전을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흐름은 한국 교육의 변혁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들을 제공한다고 본다.

첫째, 한국 교육의 대대적 변혁 그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단지 국제 사회 흐름에 우리도 조응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 과제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네스코 2050과 OECD 2030에서 제기하는 기존의 교육적 문제들 -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지속불가능성을 재생산하는 교육 실패 - 은 우리 교육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들이며 새로운 교육론에서 제기하는 의제들 대부분이 우리 교육에 상당한 적실성을 지닌다. 초중등만이 아니라 유아에서 성인교육에 이르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교육의 변혁은 ‘기본 성격의 변혁’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국 교육은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충돌한다. 우리 교육을 특징짓는 대학서열-입시교육 체제는 모든 교육주체로 하여금 경쟁에 몰입하도록 내모는 시스템으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목적, 협력과 연대의 교육, 변혁적 주체로 모두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교육 대전환을 논의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좋은 교육 내용과 방향도 함몰,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에서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거나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어 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장 핵심적인 실천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교육 대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대토론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도 사회적 토론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의 일부이지만 총체적인 교육 대전환의 상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정권마다 교육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일정한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정부 관료와 주류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사업에 불과했었다. 앞으로의 논의는 공동재 개념에 입각하여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유를 바탕으로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핀란드 사례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리고 교육의 기본 방향과 틀을 건드리는 교육 정책들은 일단 ‘우선 멈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정책과 의제들은 대부분 유네스코와 OECD의 새로운 교육론에서 비판하는 이전의 관점과 방향에서 제출된 것들이다. 대표적 사례가 고교 학점제와 최근 논란이 된 만5세 조기입학 같은 것이 그러하다. 잘못된 교육 정책이 시행되면 될수록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그만큼 교육 대전환을 어렵게 할 것이다.

교육의 틀 자체를 흔드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요 의제 중 하나인 디지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론에서 말하는 디지털 문해력은 말 그대로 디지털 환경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문해력이며, 나아가 비판적 디지털 문해력을 강조한다. 두 기구 모두 디지털 변화에 대한 강조가 발달 원리에 어긋나는 조급한 기술 교육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 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우려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들은 일단 멈춤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유를 거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서 교육 대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와 OECD의 새로운 교육론 제출을 계기로 광범하고 열의에 찬 논의를 거쳐 ‘한국 교육 대전환 2030’이 만들어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한영옥

대소중학교 교사

지난 6월 지역의 교원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 보고서를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유의미했던 점은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이들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기울인 시도와 노력이 여전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값진 일이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결과로 혼란스럽던 참가자들에게 일말의 위로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을 ‘불평등의 그물망을 걷어내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미래 교육의 성격을 ‘협력과 연대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학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교사’를 변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즉,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위해 학문 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연결되고 소외와 차별을 넘어 호혜적 윤리를 기반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는 공공재(a common good)로서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도전과 가능성을 만나는 커뮤니티이자 협력과 돌봄, 인권의 보장,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본보기이자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사’들은 ‘협력적 직업’으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 교사, 학교 내의 자원, 학교 밖의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의 ‘변혁적 역할’을 위해 교육적 의사결정에서 교사의 공공 정책 수립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 간 각 지역마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경쟁과 선별, 배제와 차별의 교육을 넘어 평등하고 협력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적인 방식의 수업으로의 전환, 학습자의 요구와 삶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 교과 간의 연계와 융합, 교과, 창체, 자치 활동으로의 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기후위기 생태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의 일선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였다. 이전 시기 교사의 성장의 목표가 개인적 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있었다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학교 및 공동체의 교육력 강화로 이어졌다. Covid-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 교원학습공동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협력적인 배움을 바탕으로 빠른 온라인 학습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과 방법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유래 없는 교원 학습 모임이 활성화 되었고 전교조와 교총의 양대 산맥 사이로 자생적인 교원 단체들이 성장해 나갔다. 이들은 최근 지역과 국가 차원의 여러 교육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원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2022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지난 10여년 간 일선 현장에서 일궈온 이와 같은 교육적 전환의 가능성과 가치, 의미가 엄청히 평가되기보다 ‘기초학력’, ‘입시 실적’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무시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동안 가꾸어오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육적 변화의 싹이 각자도생할 위기에 처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여전히 교원들의 목소리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자생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새로운 교원단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원단체와의 정책 간담회조차 정례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교육 정책과 제안이 꽃피어야 할 선거 기간 동안 교사들은 각 후보들이 내어놓는 교육 공약들 사이에서 현장에 밀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투명인간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교사의 목소리와 지식을 보다 큰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제시’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핵심 주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교사에게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전환에서 변혁적 주체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동시에 상응하는 권리도 따라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로서 교과 간 경계를 넘어 삶의 문제, 지구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새로운 조직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평화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과정, 환경생태교육과정과 같은 이름으로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역에서 ‘자율탐구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한 학교들의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유연한 시간의 운영, 보다 협력적인 조직 구조의 변화도 동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소외 없는 교육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위해 일상으로 학습과 정서적 소외를 겪는 학생, 다문화, 이주 노동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더욱 각별한 돌봄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 보조 교사의 제도 확대,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과 같은 일상적 학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이와 같은 협력과 연대의 중심에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들이 다양한 요구를 지닌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사의 수업시수는 ‘지도서 - 주입식수업 - 객관식평가’ 시절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협력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개발 - 프로젝트 형 학습 - 개별화된 평가와 피드백’ 뿐만 아니라 교원의 공동체적인 학습과 학교 내외의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등을 위한 시간의 조직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정원 문제와 연동되는데 경제적 논리 만을 바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적 관점에서 소외없는 교육을 위한 적정 학생 수, 교사의 일상과 연구 시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의 승진 제도는 이러한 일상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원이 변혁적 주체로서 협력하기 위해서 학교는 더욱 강력한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계획-실행-성찰’하는 과정이 학교의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공동체는 그동안의 교원중심에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의 다양한 자원, 지역사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자발적으로 꾸리고 가꾸어가고 있는 학교 밖의 교원들의 학습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안정적인 학습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 적절한 공간의 마련, 그리고 각 학습모임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폭넓은 연대의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자생적 교원단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법적 제도적 절차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길 바란다.

지역 교원 단체 토론회에서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혼란스런 4가지 미래 전망인 ‘환경, 디지털화, 민주주의 후퇴, 불확실한 직업의 미래’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꼽았다. 민주주의는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이 연관된다. 지구적 위협을 초래하는 환경문제, 학생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디지털화와 불확실한 직업의 미래라는 예견된 위협에 대응하여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만들어 가는 힘 또한 민주적 심성, 태도, 민주적 제도와 절차, 거버넌스를 통한 집단적 지혜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이 자리가 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고 내일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또 하나의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세션 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발표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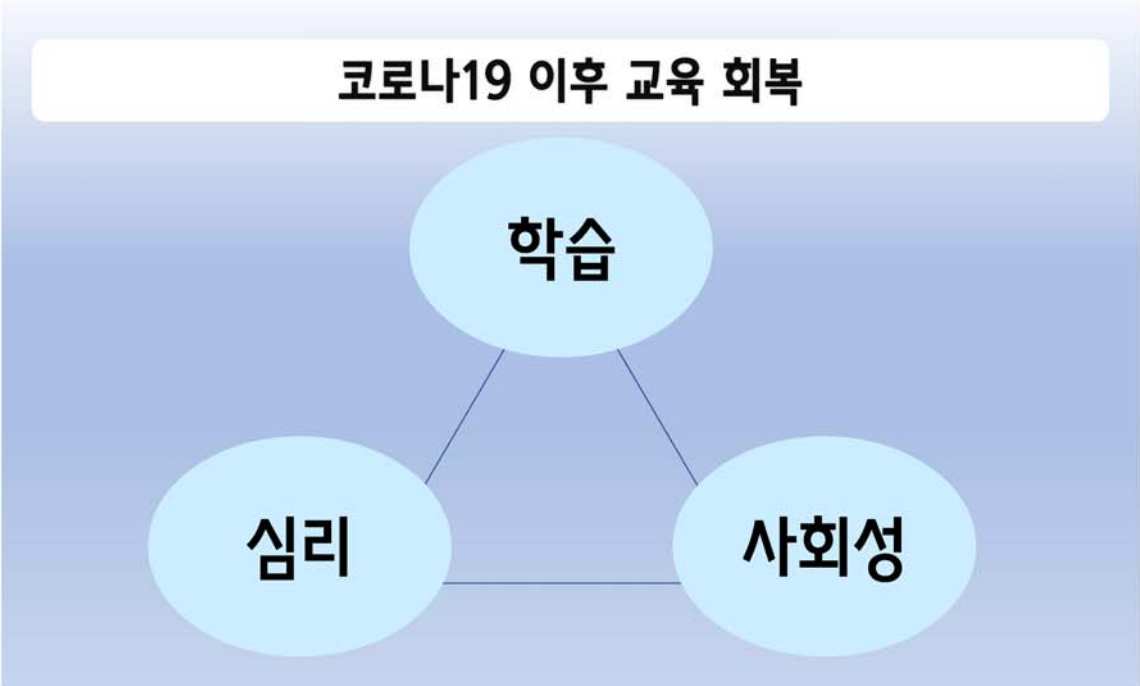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와 SDG4(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대한민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으로서
SDG4(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학교 현장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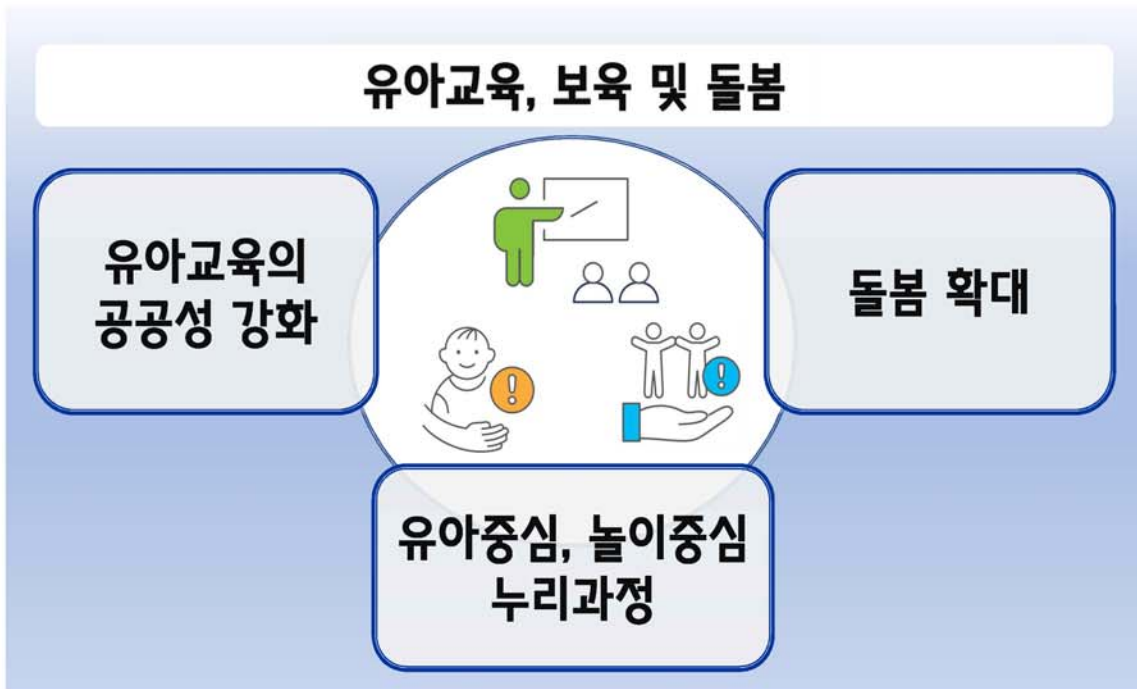
평생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기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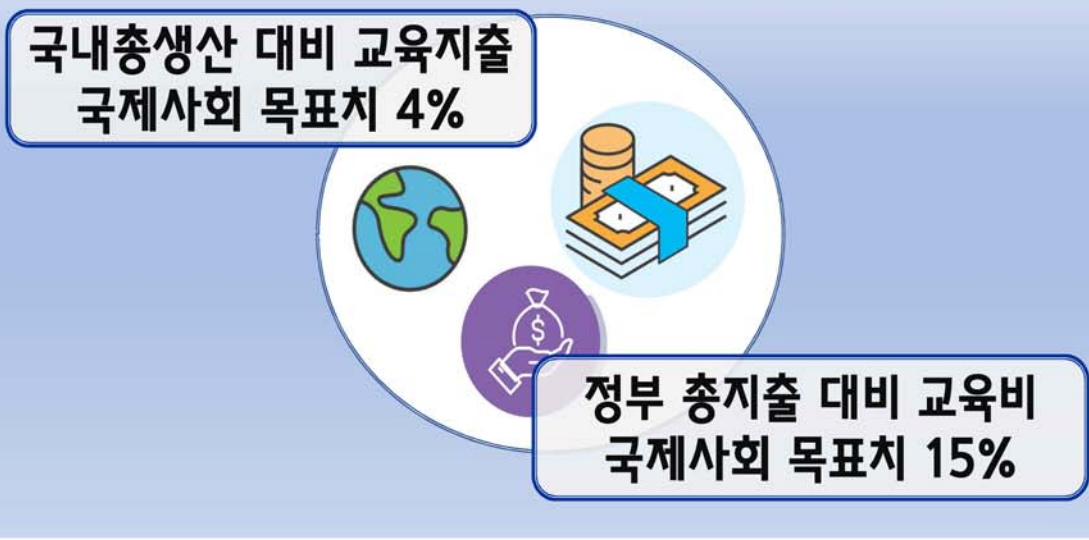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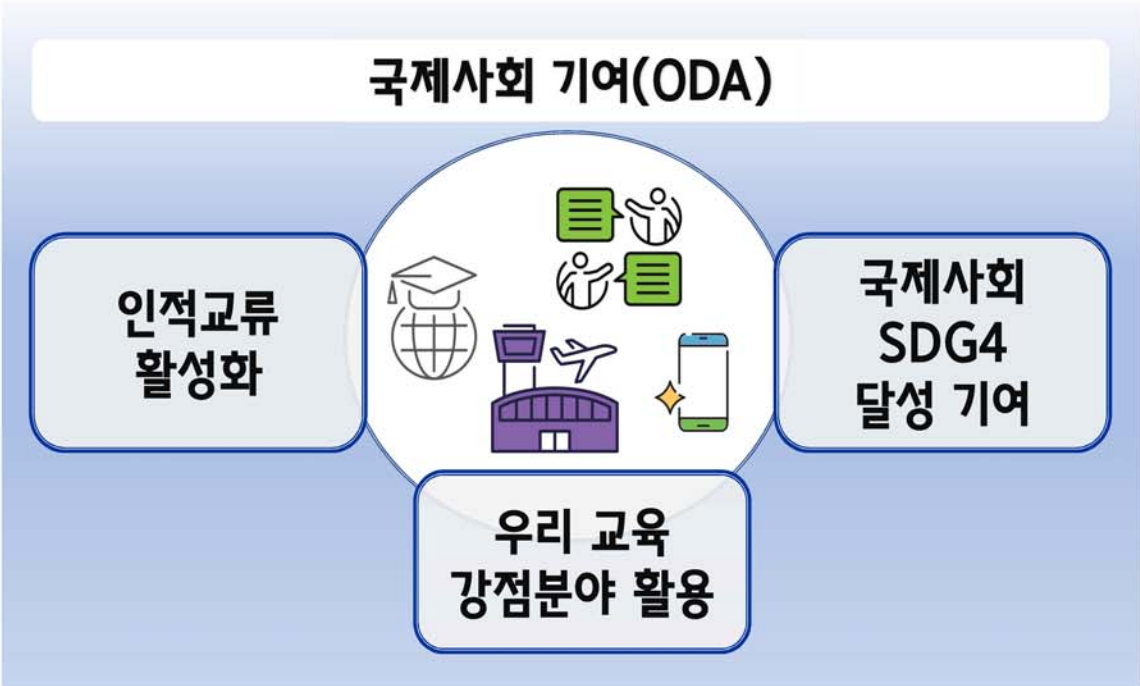


교육전환 주체로서의 교원과 학교



교육 재정 투자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토론

(좌장)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김지후 국제지속가능청년연합 사무국장

서현지 교육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

김지후

국제지속가능청년연합 사무국장

‘사회는 다음 세대를 육성해야 비로소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잠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힘입니다. 지금 이 때야말로 입시 위주의 교육, 취업 중심의 교육이 아닌, 미래 지구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 육성의 참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춰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청년의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교육은 자신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연마하는 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만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지금 당장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겨도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위험하지 않는 곳은 지구 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민중 연대의 저변은 먼저 교육으로부터 ‘지구적 상호의존 관계성’에 대한 ‘상상력’을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는 원대한 목표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지구에 함께 산다는 마음의 행동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세계시민 교육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나 격차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배경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고 연마함과 동시에 ‘자기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다’는 ‘인생 좌표축’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연마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먼저 응용할 기회가 풍부한 분야를

제시하고 이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일'이지 정답을 제시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은 배양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응용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의 균형'에 유의한다고 해도 어떤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는 일이 결승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응하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의 추구'가 본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건강하게 움직이는 상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발 능동적인 배움에 기반을 둔 '응용하는 용기'가 바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원점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힘'을 더욱더 강하고 깊이 발휘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열어가는 '청년 불굴의 힘'이야말로 산적한 난제도 인류가 전진하는 힘으로 바꾸고 지구사회의 미래를 확고히 만들어 비춥니다. 국제지속가능청년연합도 청년 풀뿌리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가치창조의 크나큰 희망을 넓혀가겠습니다.

서현지

교육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원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 교육 전환에 관한 논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모두가 먼 미래에 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내용이 있음을 느꼈다.

지난 11-13일에 교육부에서 진행한 대학생정책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약 46.6% 학생들이 직업 및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학습과 기술을, 약 33.3%의 학생들이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라고 응답해주었다. 그러나 약 63.3%의 학생들이 교육을 위한 현재의 공공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본 정책에서 제안하는 미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교육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혐오 사회 탈피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 인지를 위한 세계시민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이슈는 수면 위로 떠오른 혐오 정서이다. 삶과 노동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심화 속에서 자신의 파이를 뺏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차별과 혐오 표현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의 빠른 확산을 통해 청소년 세대에도 만연해지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를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것은 타자의 감정을 고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관계성의 결핍’에서 이어진 ‘배려와 공감의 부재’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혐오 표현을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가 곧 ‘학교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으로서 생명, 나아가 생태계에 대한 가치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세계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이며,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 사회, 세계시민으로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연대의 필요성을 알고 인권에서 나아가 생태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도와야 한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서있는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 현상으로서 인류 전체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고, 비가역적 현상으로서 기후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바뀐 기후에 잘 적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의존성과, 인간 너머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장소에서 오는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인지해야한다. 이를 위한 ‘시민성’에 대한 교육의 마련이 절실하다. 기후 위기는 생명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현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부실한 상태이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성 교육이 가능한 교과가 필수 교과로 지정되었다. 우리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제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하나의 필수 교과로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 연령층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2)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학습자 중심의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 공간 혁신의 필요성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하게 적용된 디지털 교육 현장은 근본적인 교육의 방법을 바꾸지는 못했다. 여전히 일방향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에듀테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업 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덧씌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새 인력 충원과 더불어 기존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 설계와 교육 자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학습 공간의 변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고교 학점제 등 교육 내용과 방법은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인 환경 또는 학습 공간에 관한 관심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 및 에듀테크를 통한 스마트교육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넘어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이다. 하지만 학교 공간은 여전히 교사중심의 강의식 교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학교 경계의 붕괴와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미래 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아이들이 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의 변화에 따른 교육공간 혁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공간 혁신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단숨에 마비시켰고 교육 활동도 예외 없이 중단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며 학습 공백을 채워야 했다. 모든 나라의 교육 당국이 학생과 교사가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지책(苦肉之策) 교육방법들을 고안해 대응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속한 교육행정력을 발휘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신속하게 갖추었다. 교육당국의 빠른 정책 결정과 신속한 지원 그리고 학교 교사들의 능동적인 대처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개학을 이루어냈고 학생들의 학습 중단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은 우리나라 교육을 디지털로 크게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학교에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수업용 콘텐츠를 개발하며, 비대면 교수학습 방법을 새롭게 구안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이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은 아날로그적인 교육방식에서 디지털적인 교육방식으로 대폭 전환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의 차선택에 불과하다. 학교에 출석하는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수업 시간도 동일하고 수업 방법도 거의 유사하다. 오프라인 수업과 가장 유사한 실시간 영상회의 수업이 적극 권장되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아침 등교 후 출석 점검조차 오프라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교육환경은 디지털로 전환되었지만 교육방식은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날로그 교육방식이 디지털 교육방식보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아날로그 교육방식은 디지털로 해결할 수 없는 나름

대로의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아날로그 교육방식을 모두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출석 수업에서 수행했던 아날로그적인 교육방식을 억지로 고수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방식들을 준비해 적용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AI 학습분석과 튜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새롭게 모델링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은 출석 수업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하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학습자 특성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 계획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AI 학습분석과 튜터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개인화된 학습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들이 적용 가능할 것이고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교육 방법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알맞도록 학생 개개인별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모델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 외적인 형태의 변화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디지털 전환의 효과에 알맞은 교육체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

어제의 주가는 초등학생도 알지만, 내일의 주가는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더합니다. 미래의 교육은 물론이고 과거의 교육도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과제인 코로나19 교육회복은 팬데믹이 가져온 아동·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으로 다양한 손실과 격차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다중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회복에 있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학교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있어서는, 지난 10여년 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혁신교육지구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리고 이 정책을 이어받은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지구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지역주민의 지역교육 참여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과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책제안과 같이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빈곤, 질병, 기술,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UN은 이러한 이슈들을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제시하여 2030년까지를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DGs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평생학습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에 유네스코가 개최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도 평생학습이 17개 SDGs의 선행조건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SDG 1), 건강과 웰빙(SDG 3), 성평등(SDG 5), 사회적 불평등 해소(SDG 10),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SDG 11), 공정하고 범죄 없는 도시(SDG16) 및 기후변화 대응(SDG 13)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이자 평생학습과 직결된 목표입니다.

2번 과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제안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기술 우선이 아닌 평등,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사람을 위한 교육과 혁신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1996년의 교육 정보화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디지털 전환까지 추진된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사람을 위한’이라는 방점이 없는 정책의 추진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무시한 맹목적 정책 추진 과정이었습니다. 정보/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교육적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찬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들 자신의 학습생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번 과제 평생학습은 정책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포괄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선 세션의 유네스코 미래교육보고서는 ‘평생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교육에만 집중된 정책적 에너지를 유아에서 노인까지 포괄하는 평생교육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번 과제인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율과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비는 국제사회의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하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시다만, 대부분의 지출이 초중등교육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6번 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비중이 심각하게 낮으며, 미래교육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성인학습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유네스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자료집

발간일 | 2022. 8. 26.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웹주소 | <https://unesco.or.kr/>

이메일 | ed.team@unesco.or.kr

한위간행물등록번호 | ED-2022-DI-1

